

理事(운영위 감사) 연석회의 개최·2면
各派 會長 개선 뉴스·2면
武陵里 마을 유래비 건수·3면
백범 김구선생 암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4면
문중의 청소년들께·4면

安東金氏 大宗會報

서기 1997년(단기4329년) 1월 28일(화요일) 발행
서기 1991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0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 팩스:(02)243-1073

발행인:金在基 / 편집인:金命會 / 인쇄인:申興來 ■ 발행처:安東金氏大宗會 / 우편번호 130-0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1동 112-49 / 전화:(02)244-3717 팩스:(02)243-1073 대체계좌:010983-31-0513119

모든 종친들께 행운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길

丁丑年 새해 아침 安東金氏大宗會 新年辭



종친 여러분,
1997년 정축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종친들의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종사를 먼저 생각하시고 종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종친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종사에 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종친들이 계시기에 우리 안동김씨 대종회가 다른 어느 문중보다도 조상님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소의 아쉬움이 남

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해 5월 대종회장에 취임하여(추대되어) 더 많은 종친들이 종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으나 서로의 일에 바쁘다 보니 마음은 있어도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를 비롯해 모든 종친들이 종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자랑스런 안동김씨의 후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슴 뿌듯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곧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인 조상을 공경하고 섬기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종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종친들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의 젊

은 세대들은 핏줄이나 가계에 대한 애착 심이나 자부심이 점점 잃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조상에 대한 역사, 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지 못하고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모쪼록 우리 안동김씨의 젊은이들이 지금부터라도 조상에 대해 더 열심히 배워 이 사회의 동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종친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도 행운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월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재기

忠烈公 時享奉行

金在基 회장을 비롯해 2백여 종친 참례



구랍 11월 19일(음 10월 9일) 총렬공 할아버님과 竹州朴氏 할아버님의 시향을 200여 후손들이 경향각지에서 참석하여 엄숙히 봉행하였다. 제향은 禮順에 따라 降神禮參神禮, 饗神禮의 순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일밤 有司들과 회장이 時到를 마치고 祭服을 착의한 후 獻官과 執事者의 分榜에 앞서 대종회 회장과 각파 회장이 定席

에 序立하고 禮誼를 마친 다음 다음과 같이 분방을 하였다. 총렬공 할아버지 제관분방은 初獻官은 대종회 在基 회장이, 亞獻官은 익원공과 喆源 종친을, 終獻官은 군사공과 회장 在錫 종친을 각각 분방하고 집례에는 도평의공과 熙國 종친으로, 大祝에는 壁秀 종친, 調者에는 익원공과 先會 종친을 분방하였다. 또한 죽주박씨

할머님 祭享分榜은 初獻官 대종회 在基 회장으로, 亞獻官은 부사공과 회장 在殷 종친을, 終獻官은 익원공과 永壽 종친을 분방하고 그 외는 할아버지 祭享執禮者로 분방을 정하여 享祀에 차질 없이 예행하였다. 이날 대종회 회장께서는 할아버지 영정 앞에 헌화하시고 참배를 하였으며 향축대로 금 일백만 원을 헌성하였으며 享祀에 참례한 종친들께 향사 參事를 기념하기 위한 타올을 증정하였다.

오전 9시 정각에 할아버님 향사를 올리고 간단한 음복을 마친 후 대기시킨 버스로 檜谷洞 할머님 壇墓에 11시에 도착하여 곧 향사를 올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하오 2시경 기다리고 있던 버스로 안동역까지 나와 각각 귀향길에 올랐다. 향사를 참례하고 돌아가는 종친들의 안색에는 中始祖任의 향사에 참례한 것을 흐뭇하게 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各派祖 時享奉行

密直司使公 時祭奉行

지난 96년 10월 27일 경기도 포천군 동면 사직리 密直司使公(諱七祐)壇墓에서 50여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하였다. 享祀를 올리기 전에 惠默 회장께서 譜學常識을 간단히 설명하고 정결히 차려온 제수를 陳設하여 제례순을 따라 헌향하였다. 初獻은 榮應, 亞獻은 甲會, 終獻은 泰鎬, 大祝은 大宗總務 命會.

開城尹公 諱七霖祖 時祭奉行

지난 96년 10월 13일 일요일 開城尹公 時祭를 新任 鳳來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50여 후손들이 참례하여 엄숙히 봉행하였다. 初獻에는 鳳來 회장이, 亞獻은 대종회 부회장 斗會 賢宗, 그리고 終獻은 前派會長 尙緯 賢宗이 獻酌을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顧問 泰倫 密直司使公派 載鴻 郡事公派 在哲 郡事公派 元會 郡事公派 東哲 副使公派 在洪 文溫公派 在龍 文溫公派 在應 文溫公派 用秀 都評議公派 相燾 提學公派 相蒙 提學公派 相勳 提學公派 	<ul style="list-style-type: none"> 泰珍 提學公派 在華 按廉使公派 在德 按廉使公派 元卿 按廉使公派 好振 按廉使公派 明會 翼元公派 在元 翼元公派 在聲 翼元公派 在憲 翼元公派 在另 翼元公派 吉成 翼元公派 璨會 翼元公派 明燮 翼元公派 信 翼元公派 	<ul style="list-style-type: none"> 學永 書雲觀正公派 • 本部 任員 泰亨 翼元公派 名譽會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執行部 命會 翼元公派 總務部長 孫潤順 密陽人 經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芳會 文溫公派 在煥 安靖公派 聲秀 都評議公派 敦會 大護軍公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理事 炳綠 密直司使公派 相國 開城尹公派 潤洙 郡事公派 	<ul style="list-style-type: none"> 廷秀 都評議公派 鳳會 都評議公派 相會 大護軍公派 得榮 提學公派 相喆 提學公派 泰燮 提學公派 圭馨 提學公派 道演 按廉使公派 在澤 按廉使公派 演王 按廉使公派 昌會 按廉使公派 中鉉 按廉使公派 聖會 按廉使公派 在均 按廉使公派 	<ul style="list-style-type: none"> 榮俊 翼元公派 在起 翼元公派 在溶 翼元公派 俊會 翼元公派 先會 翼元公派 在光 翼元公派 恒植 翼元公派 洙英 翼元公派 容世 翼元公派 元九 翼元公派 圭冕 書雲觀正公派 範植 正儀公派
---	---	--	---	--	--	--	--

謹賀新年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在基 拜上

在基 按廉使公派 會長
相祺 提學公派 副會長
斗會 按廉使公派 副會長
容學 翼元公派 副會長
洙栢 翼元公派 監事
榮國 文溫公派 監事

• 各派 會長
惠默 密直司使公派
鳳來 開城尹公派
在錫 郡事公派
根成 典書公派
在殷 副使公派
鶴應 提學公派
德允 判三司公派
章會 按廉使公派
秉默 翼元公派
噉永 書雲觀正公派
允會 正儀公派

世鎬 郡事公派
承會 典書公派
圭恒 副使公派
琮會 文溫公派
光道 文溫公派
鶴秀 都評議公派

理事(운영위 감사) 연석회의 개최



구랍 12월 20일 조선포텔 20층 호경전에서 대종회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안건은 ① 96년도 歲出豫算追加更正案審議決議 ② 丙子送年 오찬회의 안건으로 오전 11시 정각에 총무부장의 성원보고가 있는 다음 개회 선언을 하고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와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회장님 인사순으로 이어졌는데 회장 인사에서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하였다.

「임원 여러분, 지난 총회 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公私間 다망하시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도 많으실 터인데 이처럼 成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창원에서 총회를 개최한 일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丙子年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세월이 무상하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어느 해보다도 국가와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인 듯싶습니다. 또한 우리 안동김씨대종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총회를 시작으로 忠烈公 할아버지의 時享 봉행을 비롯 上洛台 복원사업 또 회관보수공사, 각 派祖의 시향 봉행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또한 애석한 일은 원로현종 脚辰 부회장과 冕鎬 고문께서 他界하심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 일들을 상기 하면서 앞으로 대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은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우리 문중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장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宗人 전체의 참여가 있음

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宗報도 더욱 폭을 넓혀 많은 자료를 게재하여 좋은 史料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대적인 정보로 발전시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뜻에서 복사기와 팩시밀리도 갖추어 놓았으므로 종친들께서는 보다 신속히 정보를 주셔서 日新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날의 喜悲事는 오늘로써 말끔히 정리하시고 돌아오는 丁丑年에는 더욱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서 끝으로 宗宅들의 安康과 多福多幸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인사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96년도 追加更正豫算案審議에 들어가 총무부장이 追加項目를 설명하고 승인을 청하여 임원 전원이 박수로 원안대로 無修整通過하였다. 다음은 본회의의 안건 외로 燕岐郡 종친회 회장 海演 종친과 총무를 맡고 있는 은회 종친 또 俊會 종친이 나와 燕岐大捷에 대하여 30여 분간 이야기를 한 다음 연기대접을 성역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바 대종회에서 사업기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임원들은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제시한 바 없이 대종회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 아니냐며 이는 차후에 회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심심한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할 일이므로 다음 기회로 넘기자는 의견에 일치하고 다음 순으로 오찬에 들어갔다. 준비해 놓은 다과주로 다같이 잔을 채우고 회장께서 모두의 건

강과 우리 안동김씨대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 선창으로 다 같이 술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제창하고 즐거운 오찬을 시작하여 담화를 나누고 회장께서 마련한 많은 선물을 나누어 갖고 또한 鳳會 종친께서 대

종회 달력을 기증하여 골고루 나누는 다음 하오 2시경 산회하였다. 이날 회비를 회장께서 부담해 주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큰 감사를 드립니다.

文英公 할아버지와 陽川許氏 할머니 時祭奉行

지난 96년 11월 17일 안양 文英公 할아버지 墓庭에서 提學公派 按廉使公派 翼元公派 書雲觀正公派 四派의 후손 100여 명이 참례한 가운데 按廉使公派 聖會 賢宗의 집례에 따라 初獻官은 提學公派 相詰 賢宗이, 亞獻은 按廉使公派 泰日 賢宗이, 終獻은 翼元公派 俊會 賢宗이 獻酌하고 大祝은 대종회 총무부장 命會 賢宗이 告祝하여 엄숙히 봉행하였다. 享祀가 끝난 뒤 간단히 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 회장 故 定默 賢宗의 공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文肅公 上洛伯公 提學公 時祭

지난 96년 11월 16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에 모셔 있는 文肅公壇墓 文肅公의 아들이신 上洛伯公壇墓 上洛伯의 아들 提學公壇墓 3대의 壇墓를 한자리에 設壇하여 후손 60여명이 참석하여 엄숙히 시향을 봉행하였다. 이날 獻官은 다음과 같다. 初獻 提學公派 회장 鶴應 賢宗, 亞獻은 亨植 賢宗, 終獻은 相祺 대종회

부회장이 하였으며 大祝은 相詰 대종회 이사께서 맡아 禮成하였다.

貞簡公 領三司事公 按廉使公 時祭

지난 96년 11월 15일 충북 오창 막정리에 모셔 있는 貞簡公壇墓 領三司事公壇墓와 按廉使公墓所에서 按廉使公派 翼元公派 書雲觀正公派 三派의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하여 按廉使公派 昌會 賢宗의 집례로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특히 대종회 在基 회장과 충북경찰청장 光植 賢宗이 참례하여 더욱 의의가 있었으며 대종회 在基 회장께서는 享祀 기념 타올을 기증했다.

- 이날 獻官들은 다음과 같다.
- ▶ 貞簡公 享祀 獻官
初獻官 賢默, 亞獻官 明會, 終獻官 仁默
- ▶ 領三司事公 享祀 獻官
初獻官 光植, 亞獻官 文卿, 終獻官 泰壽
- ▶ 按廉使公 享祀 獻官
初獻官 在基 會長, 亞獻官 榮俊, 終獻官 在鶴
大祝 泰日

뉴스

各派 會長 改選

- 開城尹公派 회장 改選 - 鳳來 회장 선출
전회장 尙緯氏께서 일신상의 형편으로 회장직을 사임하고 鳳來 종친께서 회장에 취임하였다.
- 文溫公派 회장 改選 - 芳會 회장 선출
전회장 在承氏께서 일신상의 형편으로 회장직을 사임하고 芳會 종친께서 회장에 취임하였다.
- 安靖公派 회장 改選 - 在煥 회장 선출
전회장 炳善氏께서 일신상의 형편으로 회장직을 사임하고 在煥 종친께서 회장에 취임하였다.
- 都評議公派 회장 改選 - 聲秀 회장 선출
전회장 寅秀氏께서 일신상의 형편으로 회장직을 사임하고 聲秀 종친께서 회장에 취임하였다.

祝 박사학위 취득

철학박사 金泰鯨 종친
위 종친은 按廉使公 21대손이며 아버지 聖會 氏와 어머니 延安李氏 사이에 장남으로 충북 괴산에서 출생하여 성균관 대학교 학사 및 석사 과정을 거쳐 1996년 8

월 24일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은 우리 안동김씨 문중의 영광이옵기로 이에 축하드립니다.

96년 8월 경기북부 수해지구 종친들 위문

翼元公派에서는 96년 8월 경기북부지역 연천군 종친들 10명과 파주시 종친, 문산을 종친들 32명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재화의 의지력을 격려하고 돌아왔다. 이날 같이 다녀온 종친은 翼元公派종회 부회장 榮俊 賢宗, 在起 賢宗, 상무이사 尙默 賢宗, 총무부장 在億 賢宗이다.

榮轉

- 충북경찰청장 光植 賢宗은 96년 1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榮轉 轉補하였다.
- 金思興 賢宗은 문화체육부 한국청소년개발원장에 영전.
思興 賢宗은 按廉使公 18대손이며 대종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故 思達 박사의 친제로 임원직에 있을 때 대종회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왔다.

忠烈公考妣位享祀 獻誠者名單

* 협천해 주신 종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派	姓名	金額	住所	派	姓名	金額	住所	派	姓名	金額	住所
密	容日	50,000	청주시	提	鶴應	50,000	괴산읍 提學公宗中	翼	容旭	20,000	경북 영주시
按	在基	1,000,000	대종회회장 서울	開	成植	20,000	강원 태백시	典	鍾文	30,000	경기 화성군
翼	先會	20,000	충남 부여	按	五植	20,000	대구광역시	翼	洙甲	20,000	경북 의성 단촌
都	浩極	20,000	부산광역시	翼	漢默	20,000	충남 부여시	郡	場	20,000	경기도 화성군
提	相煥	10,000	충남 천안시	翼	俊會	20,000	경기 구리시	翼	泰東	20,000	경북 의성 단촌
翼	度植	20,000	경북 안동시	翼	斗會	20,000	강원 강릉시	郡	世鏞	20,000	경기 화성군 금의
翼	炯植	20,000	강원 태백시	翼	萬會	20,000	충남 부여시	郡	淳鏞	20,000	경기 화성군 금의
開	世泳	30,000	강원 태백시	翼	典在錫	20,000	충남 부여시	翼	泰善	30,000	경북 안동시
開	福泳	30,000	강원 평창군	翼	泰哲	20,000	충남 부여시	翼	大邱宗親會	100,000	대구광역시
翼	成植	10,000	경북 영주시	翼	泰亨	100,000	명예회장 서울	郡	陽川宗中	50,000	서울
								翼	容俊	50,000	경북 안동시
								계		3,200,000원	

武陵里 마을 유래비 建豎

贈工曹參議諱繼貞의 묘소로 유래되

지난 9월 8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에서는 마을 유래비를 건수하였다.

여기 무릉리는 원래 무량이란 洞名이었으나 동리 앞뜰에 무릉원이란 標石이 세워져 있었으며 이 고장은 按廉使公의 6대손 軍資監諱公衍의 셋째 아들 贈工曹參議諱繼貞의 묘소가 이

곳에 모셔져 있고 이 묘소로 말미암아 아차실의 전설을 낳게 되었다. 이곳에는 여러 姓氏가 살고 있지만 그 중 우리 安東金氏가 주축이 되고 있다. 다음은 이번에 건수한 마을 유래비문과 枕流亭十詠詩韻 原詩, 忠武公 金時敏 장군의 손자인 安豐君 號栢谷 諱得臣의 詩 몇수를 소개합니다.

무릉리 마을 유래비

태야산 주룡(大冶山 主龍)이 힘차게 내려와 달은 남향복지(福地)에 한쪽의 동천(洞天)이 배편되었으니 청룡백호가 겹으로 둘러싸고 앞으로 박대천(博大川)이 호수되어 흘러들며 그 뒤로는 낙영산(落影山)이 안산되어 장엄하다.

창송록죽과 기화요초가 어우러지고 산새소리 맑은 물소리 사계절을 노래하여 선경을 이루나니 옛 분들은 이곳을 이름하여 무릉(武陵)이라 하였다.

이는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 중에 나오는 별천지 무릉도원(武陵桃源)과 방불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무릉도원은 본시 한마을이었기로 속음(俗音)으로 통털어 「무량」이라 불리웠으니 원도원 앞뜰에 무량(武陵)이란 표석이 세워진 것이나 가마소 강가에 세워졌던 침류정(枕流亭)을 알려 무릉에 소재한다고 한 낭성지(浪城誌) 기록을 보면 이를 분명히 뒷받침하게 된다.

그후 청주군 청천면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병합에 따라 아차곡, 우동, 내, 외산막을 망라하여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로 편성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조선조 선조(宣祖) 때에 증공조참의 김계정(贈工曹參議金繼貞)의 묘소가 아차실의 전설을

놓고 입장(入葬)하면서 내외촌에 그 성손(姓孫)이 주축을 이루고 또 여러 선사가 응거하면서 인심이 순후하고 미풍양속을 지키어 오니 지령(地靈)을 힘입어 역대로 뛰어난 재질이 배출되었다. 토지는 비옥하여 오곡백과가 풍요롭게 결실되다 그 풍미가 또한 유난히 좋은 것이 특색인 지라 이같은 민심과 기운(氣運)이 영원히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이상향이 건설되기를 굳게 다짐하고 영원한다.

말미에 불이거니 동구 밖 가마소(釜潭)에는 명종(明宗) 때 충청감사 황서(黃瑞)가 침류정을 짓고 무릉도원의 절경을 구경(觀光)하였는데 그 후 우리나라의 위대한 학자요 시인인 백곡 김득신(栢谷金得臣)이 읊은 침류정십영시운(十詠詩韻)인즉 무량의 십승경계를 노래한 절창인고로 각 절구(絶句)의 제목만이라도 여기 기록해 남기고저 한다.

아차캐미(峨嵋採薇) 종당조어(鍾潭釣魚) 자봉영월(子峰迎月) 선암락하(禪巖落霞) 화양방운(華陽訪雲) 화동심춘(花洞尋春) 장림모우(長林暮雨) 열수조운(列岫朝雲) 평교목마(平郊牧馬) 단교귀승(斷橋歸僧)

서기 1996년 9월 일 建碑推進黨會 立

枕流亭十詠詩韻 침류정의 열 가지 경계를 읊음

(原詩) 栢谷 金得臣
(譯詩) 海農 金在華

〈峨嵋採薇 아차산의 고사리 꺾기〉
薇蕨春山生 高사리가 봄동산에 낳다고 하네
味甘眞可茹 그 맛이야 달고도 부드러우리
草堂方有實 초당에 귀한 손님 마침 오시니
女隸携籃去 계집아이 바구니 메고 산으로 가네

〈鍾潭釣魚 가마소의 고기잡기〉
亭下澄潭畔 정자 아래 맑은 소 그 언저리에
漁磯綠翠柳 낚시터는 푸른 버들 가리웠는데
莫言人已亡 사람들은 잊었다고 말하지 말라
復有持竿手 다시금 낚시대는 손 잡혀있네

〈子峰迎月 군자산의 달맞이〉
亭上坐幽人 정자에는 세상 잊은 사람 앉았고
峰頭生明月 산마루에 휘영청 밝은 달 뜬다
老嫗如有情 늙은 달은 유정하여 오늘밤에도
來照此蓬華 초라한 이 집에도 와 비치도다

〈禪巖落霞 절바위의 놀이 내리다〉
霞影照禪岩 놀 그림자 절바위에 빛기었으니
恰似紗羅綺 흡사하니 고운 비단 자른 듯하네
風吹河太狂 바람은야 광풍으로 불지를 마라
片片落秋水 너울너울 가을물에 떨어지겠다

〈華陽防隱 화양동의 군자를 찾아감〉
隱者華陽居 군자는 화양동에 산다 하던데
雲深不識處 구름이 깊었으니 있는 곳 몰라
行尋倘逢着 찾아 만나 반가이 거닐랑이면
可共採茶煮 복령을 지져가며 함께 즐기

在鵬氏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95년도에는 燕岐郡民大賞 受賞

按廉使公 19대손인 在鵬氏께서는 지난 1996년도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자 선정에서 학술 부문에 선정되어 1996년 12월 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수상식을 가졌는데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40회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또 96년 12월 7일에는 서울신문사에서 주

최하고 문화체육부에서 후원한 향토 문화대상 전통문화 부문에 선정되어 수상하였으며 95년도에는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이 커 연기군민대상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 분의 약력과 공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약 력

1922년 8월 9일생
1943년 3월 연희전문학교 문과 졸업



松岩 안동김공 榮得頌德碑 建豎



지난 1996년 11월 17일 11시 전북 정읍시 응동면 수천리 故 榮得 賢宗의 8대조이신 浮休齋 諱堪의 齋室庭園에 公

의 頌德碑를 건수하고 제막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날 정읍시 칠보면 면장을 비롯 儒林인사와 지역 유지 6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제막식을 가졌다. 故 榮得 賢宗은 郡事公 17대손이며 정읍시 칠보면 태생으로 평소 숭조이념이 투철하여 공의 8대조인 浮休齋公 諱 堪의 祠宇가 정읍군 칠보면 시산리 송산사에 배향되어 있는데

여기에 同志인 月峰金公 梧無齋金公 壺岩宋公 蘭谷宋公 天默齋李公 觀山李公과 더불어 結社自目以狂하니 世稱 七狂이라 하였다. 公은 8대조인 浮休齋 洗馬公 諱 堪의 후손계 종친회 장직에 있으면서 松山祠 儒林色掌으로 다년간 공헌한 바가 컸고 종시에는 재정난으로 난관에 봉착하자 私財 畚 2천 평을 종회 운영기금으로 회사하여 洗馬公 묘소수호관리 및 묘소 진입로를 개설하여 후손들이 선영참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齋室補修 및 諸般宗事를 술선수범하여 온 훌륭한 분이였기에 후세의 귀감이 되어 이에 송덕비를 건수하고 후손들에게 송조정신을 전지전승코자 함이라. (郡事公派 會長 在錫)

알아두면 좋은 상식

굴껍질로 가구 광택을
굴을 먹고 난 후 껍질을 가구 광택을 내는 데 쓰면 좋다. 더러워진 가구나 마루를 청소할 때에는 마른 걸레로 닦은 후 굴껍질을 깔아 우려나오는 물로 닦으면 광택도 나고 향기도 좋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마루의 묵은 때는 세탁용 소다를 녹인 물로 골고루 문질러 주면 때가 쉽게 빠진다.

환절기 건강관리
일교차가 심하므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도록 한다. 더울 때는 벗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독감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

하는 시기이므로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다. 실내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젖은 빨래 등을 널어 놓는다.

창틀 먼지는 소금으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늘 창문을 닫아두어 창문틀에 먼지가 쌓이게 된다.

이럴 때에는 젖은 걸레에 소금을 묻혀 닦으면 손쉽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또 물기가 마른 후 양초 토막으로 창틀을 문지르면 먼지 끼는 것을 방지하여 항상 깨끗한 창문을 유지할 수 있다.

1945년 11월 조치원 공립고등학교 교사
1947년 4월 대전공립공업중학교 교사
1989년 9월~현재 충청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1990년 3월~현재 연기군 향토유적보존위원회 위원
1993년 1월~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공적 개요

30여 년간을 향리에 문혀 오직 민족사와 향

토사 연구에 전념하여 오면서 광개토태왕의 비문연구 및 신라, 고구려, 일본에 끼친 백제사 연구와 연기향토사 연구논문 등 40여편을 발표하여 민족사관의 주체성 확립과 향토사 정립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으며, 노령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연기군 향토사 연구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후학의 귀감이 됨.

派 姓名	金額	住 所	派 姓名	金額	住 所	派 姓名	金額	住 所	派 姓名	金額	住 所	派 姓名	金額	住 所
按 시득	20,000	서울	按 재택	20,000	충남 천안	翼 재승	20,000	경기 수원	副 종찬	30,000	경기 구리	書 만용	30,000	경기 안산
按 관목	20,000	서울	按 영복	20,000	강원 원주	提 재경	30,000	경기 수원	副 흥열	20,000	경기 구리	典 근성	100,000	충남 이산
按 상백	20,000	서울	提 철호	20,000	서울	提 철원	30,000	경기 수원	翼 진태	100,000	서울	文 무영	50,000	충북 청주
大 태균	30,000	서울	提 윤수	50,000	경북 의성	翼 재범	20,000	경기 수원	按 성희	30,000	충북 괴산	按 태석	30,000	서울
翼 경중	20,000	강원 양구	按 원목	20,000	경기 화성	翼 병기	50,000	경기 수원	提 재위	60,000	대구광역시	文 삼조	30,000	경북 포항
翼 수영	20,000	강원 양구	按 연옥	20,000	경기 여주	翼 두응	30,000	경기 수원	提 명식	20,000	대구광역시	文 화운	20,000	경북 포항
翼 명희	20,000	강원 양구	按 재환	30,000	서울	提 계회	30,000	경기 수원	翼 용선	30,000	충남 당진	文 재욱	30,000	경북 포항
按 철현	30,000	충남 천안	翼 수대	30,000	대구광역시	提 석희	20,000	경기 수원	按 용범	30,000	서울	翼 在敏	30,000	서울 관악
按 성연	100,000	충남 천안	翼 광석	20,000	경북 영덕군	提 태룡	20,000	경기 수원	翼 정희	30,000	충남 천안	계 1,840,000원		
按 태서	30,000	충남 천안	翼 수한	20,000	경북 영덕	翼 수돈	20,000	경기 수원	郡 봉민	30,000	광주광역시			
提 성회	20,000	인천광역시	翼 수천	20,000	서울	副 복길	30,000	경기 수원	密 응묵	30,000	서울			
按 상회	20,000	충북 괴산	翼 호식	20,000	경기 수원	按 복희	30,000	서울	文 한준	20,000	충남 공주	* 협찬 獻誠해 주신 종친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翼 길성	50,000	서울	翼 재학	30,000	경기 수원	副 석환	20,000	경기 구리	郡 재홍	20,000	서울			

제54호에서 계속 2. 암살사건의 전개

4) 안두희와 서북청년단 · 홍종만 · 김지웅

1947년 안두희는 신의주에서 월남하였다. 남한에서 안두희를 처음 맞이한 것은 '쫓겨마한 부락'에서 월남민을 심문하던 서북청년단이었다. 안두희는 바로 이 서북청년단 대원들의 안내로 서울로 오게 되었다.

월남 후 안두희가 처음 접촉한 단체는 서북청년단이었다. 안두희는 李範奭의 민족청년단 등 여러 청년단체를 찾아가 보았지만, 결국 서북청년단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당시 서북청년단 부위원장인 金聖柱와 문봉제 등과의 친분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안두희는 서울에 온 지 석달 만에 서청에 가입하여, 서울 제1지부이며 본부 직속인 종로지부의 사무국장이 되었다.

당시 서북청년단은 좌익에 대한 복수심에 가득 차 반공전선에서 많은 활약을 하던 단체였으며, 경찰 및 군의 정보기관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경찰과 군부는 빨갱이와 싸우는 데 청년단이 필요하였고, 서북청년단도 정부기관의 보증과 지원이 필요하였다. 당시 경무국장 趙炳玉 · 수도경찰

청장 張澤相 등 경찰 수뇌부의 밀접한 지원 아래, 서북청년단은 경찰이 할 수 없는 성질의 대공투쟁을 담당하였다.

경찰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찬조금을 주거나, 소금 배급표를 몇천 장씩 주어 서북청년단과 그 간부들의 활동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육군 중령 김일한이었다. 김일한은 안두희의 외가쪽 친척이자 고향 후배로서, 월남하여 인천 특무대 대장을 하고 있었다. 김일한은 안두희에게 대륙공사의 김창룡을 소개하였다.

안두희는 서북청년단에서 처외삼촌

을 받아 지내는 형편이었다.

김지웅은 안두희의 첫인상에 대해 '영웅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안두희는 김지웅과 홍종만의 영향을 받아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자신 스스로 정보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이후 김지웅, 홍종만, 안두희는 자주 회동하였다. 김지웅은 안두희에게 '안동지는 애국자'라고 치켜 세워 주었고, 이들을 후암동에 있는 자택으로 데리고 가서 안두희를 각별하게 대접하는 등 안두희에게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여 안두희의 환심을 샀다.

김지웅은 '빨갱이 정보'와 더불어 한독당의 수상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들었고 안두희가 노덕술 등 경찰간부, 김일한 등 특무대에 알아본 결과 김지웅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크게 감명받았다. 이제 안두희는 김지웅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결국 안두희는 월남 후 서북청년단에서 활동하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편으로는 경찰 및 군 수뇌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뒷날 백범 암살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김지웅, 홍종만 등과 연결되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백범 김구선생 암살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

국회의원 강 신 옥

비를 보조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안두희는 경찰의 수뇌부 및 중견 간부들과 알게 되었다.

안두희는 이러한 경찰과의 인연을 넘어 군의 정보기관, 특히 특무대(SIS)의 金昌龍과 연결되었다. 당시 김창룡은 대위 계급의 1연대 정보장교였지만 이승만 대통령, 채병덕 총참모장, 신성모 국방장관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던 정보계의 실권자였다. 김창룡은 소공동에 大陸公司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보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빨이 되는 홍종만을 만나게 되었고, 홍종만은 김지웅을 안두희에게 소개했다. 김지웅은 안두희와 같은 평북 용천 출신으로 일찍이 만주 관동군의 헌병 통역 출신이며 중국 汪兆銘 정권의 고문을 역임했다고 자칭하고 해방 후 귀국해서는 汪金山 장군을 자처하면서 고급정보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던 과거 경력이 수상한 인물이었다.

홍종만 역시 김지웅의 지시를 받고 있는 정보에 밝은 사람이었다. 홍종만은 김지웅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

문중의 청소년들께

올해도 변함 없이 입학 시험철은 다가왔다.

우리 문중의 새싹들도 학업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또 불행히도 학업을 포기하고 일터로 나간 젊은이도 많을 것이다.

현대는 시험도 경쟁이요 노동도 모두가 경쟁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알고 보면 인간사가 경쟁에서 시작하여 경쟁으로 마감하는지도 모른다. 역사를 들추어보아도 위인(偉人)이건 상인(常人)이건 귀인(貴人)이건 천인(賤人)이건 경쟁 속에서 살다가 간 것이다. 선의의 경쟁이란 말도 있으나 역시 경쟁은 경쟁이 아니던가 경쟁에서 크게 이긴 자는 큰 사람이 되었고, 비긴 자는 보통 사람이 되었으며, 진 자는 작은 사람, 못한 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채 살다 갔다.

우리는 또 이 경쟁이 싫어서 피하고 싶어도 그럴 방법이 없다. 인간은 자고로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같이 살자하니 자연히 경쟁이 따라 붙어 생각하기에는 불행한 삶이 인간 생애라 해도 경쟁을 피할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인류사는 경쟁을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쟁을 또한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다. 요는 이 경쟁을 어떻게 만물의 영장답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이겨 나가느냐가 절대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겠고 이 지혜를 얻자니 공부하고 책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입학시험, 입사시험 철인 요즈음 우리는 문중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아낌없이 보내고 싶다. 힘을 내라, 우리 젊은이들이여. 성공했다 하여 자만하지 말라, 고비가 또 온다. 실패했다 하여 실망하지 말라, 기회는 또 온다. 용기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다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문학박사 金判永 글 중에서 <편집부>

訃 音

- 1. 대종회 고문이신 冕鎬 賢宗께서 96년 11월 6일 노환으로 자택에서 별세 하였습니다.
2. 대종회 전 부회장 卿辰 賢宗께서 96년 10월 23일 노환으로 자택에서 별세 하였습니다.
3. 대종회 전 이사인 泰雄 賢宗께서 96년 10월 17일 병환으로 풍납동 중앙병원에서 별세 하였습니다.
4. 대종회 이사인 在光氏 대부인께서 지난 11월 13일 노환으로 자택에서 별세 하였습니다.
5. 대종회 이사인 潤珠氏 대인께서 96년 10월 노환으로 별세 하였습니다.
6. 翼元公派 고문이신 上默 賢宗께서 지난 96년 12월 22일 노령의 급환으로 자택에서 별세 하였습니다.

안 내
지난번 대종회 회보에 공고한 翼元公派 寫眞譜發刊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翼元公派 중진회에서는 寫眞譜 收單 접수를 오는 97년 3월 8일까지 마감할 계획인 바 아직까지 수단을 제출하지 않은 중진들께서는 서둘러 제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845-5631 翼元公派 회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宗會報 구독 신청 전화(02)244-3717 팩스(02)243-1073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TEL : 783-3166 FAX : 780-8478 783-3167 자택 : 552-5327 780-84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2호)

96년형 에어컨 할인가격(전기종) 7회 무이자 판매 -종친 특별 상담- 삼성공조기기 대표 김재명 T424-0019(대) 익원공파 중곡동 김상목

族譜出版의元祖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週年の 歴史와 全國族譜 90% 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 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輯, 整書, 出版, 印刷, 製册 등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 時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機能者 多數確保 5. 1,000餘坪 以上에 넓은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 以上 頒發 便宜提供 本社 支社 全覽 回想社 서울 支社 開設 서울 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의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 支社를 開設하였습니...